

남가주 교계 “투표권 침해 의혹 규명해야”

미주 한인 교계 및 차세대 단체들과 연대 의사 밝혀

남가주 교계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OC교회협의회 등은 18일 오전 LA 한인타운 소재 평화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훼손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송정명 목사, 한기홍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 교계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독일보

(김은목 목사), OC교회협의회(최국현 목사), CBS 중보기도팀(한기형 목사), KCM USA(민종기 목사), 다민족기도회(강순영 목사), King Dom World Mission(김인식 목사), 월드쉐어(강

태광 목사), 국가원로회(김향로 장로), 이승만기념사업회(박요한 장로), 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최학량 목사) 등 여러 교계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참정권 박탈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헌법과도 행위다”고 밝혔다.

토마스맹 기자 → 4면에서 계속

2026 북미 월드컵 출전 48개국 중 기독교 박해국 몇 곳?

전 세계인의 여름 축제인 2026 월드컵이 북미 3개국인 캐나다·미국·멕시코에서 6월 11일 개막한 가운데, 오픈 도어선교회는 월드컵 출전 48개국 중 기독교 박해 국가들을 조명했다.

출전 국가가 36개국에서 48개국으로 대폭 늘면서, ‘2026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 50개국 내 포함된 월드컵 참가국들도 대폭 늘어 14곳이나 된다.

가장 박해순위가 높은 곳은 현재 전쟁중인 이란(10위)이다. 개최국인 멕시코도 30위이고, 직전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는 44위이다.

이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13위, 이라크 18위, 알제리 20위, 모로코 23위, 우즈베키스탄 25위, 콩고민주공화국(DRC) 29위, 튀니지 31위, 터키(튀르키예) 41위, 이집트 42위, 콜롬비아 47위, 요르단 49위 등이다.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6개국으로 가장 많고, 아프리카 5개국, 아메리카 2개국, 유럽 1개국 순이다. 대부분 중동에 위치한 무슬림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26 WWL 국가 목록은 1위 북한을 비롯해 소말리아 2위, 예멘 3위, 수단 4위, 에리트레아 5위, 시리아 6위, 나이지리아 7위, 파키스탄 8위, 리비아 9위, 이란 10위이다.

4년 전인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WWL 2022’ 포함 국가는 이란(9위), 사우디(11위), 카타르(18위), 모로코(27위), 튀니지(35위), 멕시코(43위) 등 출전 32개국 중 6개국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바 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세계 최고 스타들이 ‘아름다운 게임’을 펼치기 위해 경기장으로 나서는 그 순간에도, 축제의 환호 뒤편에는 추악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며 “월드컵에 출전한 일부 국가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거나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대웅 기자

이란 출신 목사 “국제 사회 개입은 침략 아닌 구출 작전”

이란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박씨 목사(은누리교회 페르시아어 예배 담당)가 12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린 한국복음주의협의회 발표회에서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이란 크리스천의 시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목사는 현재의 이란 상황을 단순한 국제 분쟁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된 독재 체제와 국민 저항의 문제로 규정했다.

박 목사는 “48년 간 자국민의 자유를 인질 삼고 이슬람 외에 타종교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해 온 이 악에 맞서는 것은, 평화를 깨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양심이 자 공의의 실현”이라며 “고통 받는 9,000만 이란 국민들에게 국

제사회의 개입은 ‘침략’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출 작전’이자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자유’의 수술”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저항은 최근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일시적 불만이 아니다. 지난 48년 동안 지속된 압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저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 국민들은 국제 사회의 공의로운 개입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하는 평화적 해결론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박 목사는 “왜 평화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군사적 구출 작전을 지지하는가?”라고 묻



이란 출신으로 한국에 귀화한 박씨 목사

지만, 이란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은 한국의 광화문 광장처럼 평화로운 시위로 정부와 타협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며 “이슬람 독재 정권은 그 어떤 평화 시위로 용납

하지 않으며 오직 총알로만 답하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월 이란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갔지만 그 결과는 4만 명 이상의 무고한 죽음이었다”며 “국민들은 이 악마 같은 정권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출할 방법이 없었기에 결국 국제사회에 SOS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이란 국민들이 이스라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유대인들은 거의 2700년 동안 이란 땅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이란계 유대인’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 왔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 1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리스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 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교회및비영리단체도 **최대 40%**를
태양광 설치비의 현금으로 돌려받으세요!
 연방정부의 DirectPay 프로그램으로 교회도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7년 말 비영리단체 지원 인센티브가 종료!
 지금 시작해야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솔라!!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합니다.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6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213.500.8000 | **213.798.2200**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총장 엘리야 김 박사)는 6월 13일(토) 오전 11시 나눔과 섬김의 교회 본당에서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와 2부 학위수여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이경화 박사의 인도로 시작됐다. 예배에서는 찬송과 신앙고백, 성경봉독에 이어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 전 부총장)가 “교회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예배에는 서사라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의 기도와 Evergreen Choir의 특별찬양, 조은혜 목사(개혁장로회 한미연합총회 서기)의 성경봉독 등이 이어졌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중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2026학년도 학위수여식 © ctsua.org/

경회장)의 축도로 1부 예배 순서가 마무리됐다.

2부 학위수여식에서는 민준기 박사(미주크리스천 신학대학원 대

학원장)의 인도로 김은주 권사(운영이사장)가 개회사를 전하고, 권세일 박사(미주 크리스천신학대학교 교수 및 빅토리아복음교회 담

임)이 기도하고 이학진 박사(학생처장)가 학사보고를 맡았다.

엘리야 김 총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이사효 전도사(LA 연합감리교

회 지휘자)의 축가를 불렀다.

이어 남가주 교계 인사들의 축사와 권면이 이어졌다. 이호우 목사(OC 기독교협의회 중경회장), 이재환 선교사(컴미선대표), 이정현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김인철 목사와 강성수 목사가 졸업생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했다.

학위수여식에서는 ▲신학사(B.A.)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Th.M.) ▲기독교사역학석사(M.A.C.M.) ▲선교학박사(D.Miss.) 학위가 수여됐으며, 명예신학박사 학위도 함께 수여됐다. 소피아 윤 전도사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전했으며, 서진건 목사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사말을 전했다. 주디 한 기자



소향·조혜련·선·리노 한 무대에 선다

러빙위십(대표 조셉 리 목사)이 8월 1일(토)과 2일(주일) 오후 6시 30분에 LA다운타운 노보극장(The Novo)에서 찬양 콘서트 'This Is RUACH: The Voice'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음악과 진솔한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함께 경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주최 측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고, 참석자들이 복음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콘서트에는 가수 소향을 비롯해 선, 조혜련, 드러머 리노 등이 출연해 음악과 간증, 토크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소향은 자궁암, 폐렴 투병 등 여러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그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빚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간증해 왔다. 요한계시록을 평신도의 시각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해설한 신앙 시리즈 '마라나타: 일곱교회 이야기'를 펴내기도 했다.

선은 다양한 기부 캠페인과 마라톤 행사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고, 루게릭 요양 병원 및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섰다.

조혜련은 성경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성경바람잡이'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드러머 리노는 어린 시절 작은 시골 교회에서 드럼을 처음 접한 뒤 음악인의 길을 걸었지만, 청소년기에 의료사고로 실명 판정을 받으며 절망을 경험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이후 시력을 회복해 세계적인 드러머로 성장했다.

또한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병주 목사도 조셉 리 목사도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복음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주디 한 기자 티켓 \$50, \$40 티켓 문의: 213-357-1565, 562-766-9494(문자), www.axs.com

페트라대학교 2026년도 학위수여식

로스앤젤레스(LA)에 본교를 둔 페트라대학교(Petra University USA, 총장 김정호 박사)가 지난 5월 30일(토) 루터중앙교회에서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생명입니다'라는 사명아래 이날 행사에는 교수진과 졸업생, 가족 및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페트라대학교는 개혁주의 정통신학을 추구하며 21세기 융합신학을 완성해 성경적 인



페트라대학교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 페트라대학교

재를 배출하는 데 힘쓰고 있다. 페트라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교로 B.Th, M.Div, D.Min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현재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 중에 있다. 김민선 기자 문의: 213-210-3877

순천에서 미서부까지, 찬양으로 사랑을 전하다

1969년 창단된 순천YWCA 여성합창단이 오는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4일의 일정으로 미서부 합창선교 여정에 오른다.

6월 20일(토) 오후 5시, 사우스패서디나에 위치한 평강교회(송금관 목사)에서 열리는 블레싱 콘서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평강교회에서 열리는 공연에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미국 YWCA LA Pasadena & Glendale의 CEO와 스태프들도 참석해 순천YWCA 합창단의 미서부 방문을 함께 축하할 예정이다.

순천YWCA 여성합창단은 지역 음악문화 발전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해왔다.

2014년에는 정기공연 수익금으로 '북한 어린이 분유 보내기 운동'에 참여해 YWCA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후원 컨테이너를 보내기도 했다.

제4회 평강블레싱콘서트 6월 20일(토) 오후 5시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문의: (213) 393-9136



건강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

주제: '말씀 위에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 (시128:1~3)

- 1 모두가 어렵다고 말할 때 길을 여는 믿음(삼상1~3장)
- 2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엡1~2장, 벰전2:9)
- 3 말씀으로 세워 가는 성경적 가정교육(신6:4~9, 요13~17장)
- 4 함께 묻고 함께 답을 찾는 믿음의 대화(약1:5)

가정의 고민과 신앙교육의 실재를 함께 나누는 질의응답 시간



강사: 김경운 (전)광신대학교 총장

(전)아신대학교 법인이사 (전)총신대학교(합동)운영이사 (전)한국교회장제단 (전)감보디 선교사 (전)SGN 채널이사 (전)목포제일노회 노회장



날짜 2026. 6. 27(토) 오전10:00 ~ 오후 3:00

장소 LA 소망선교회 (3511 W. Olympic Blvd. #308 LA, CA 90019)

등록마감 6월 20일(토)까지

등록 및 문의 전화 213-407-4524(김갑선 목사) 213-590-9885(김영호 목사) 213-739-0403(기독교일보)

주최 LA 소망선교회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선상감사만찬 개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위에 한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은목 목사)는 6월 1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롱비치 항공에서 교계 원로 및 지도자들을 초청한 「선상감사만찬」을 개최하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온 원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

이날 행사는 크루즈선 '엔들리스 드림'에서 진행되었으며, 남가주 지역 교계 원로 목회자들과 지도자, 교협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바다 풍경 속에서 예배와 오찬, 친교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다.

1부 예배는 최훈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양대연 목사의 찬양 인도, 김대준 목사의 기도, 유조이스 전도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남가주교협 회장 김은목 목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제56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교계 원로 및 지도자 초청 선상감사만찬을 개최했다. © 남가주교협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은목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의 미주 한인교회가 있기까지는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와 희생, 헌신이 있었다”며 “우리는 그 신앙의 유산 위에서 있으며, 원로들

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선상 오찬과 함께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2부 순서는 김병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

었으며, 정완기 목사의 색소폰 연주와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참석한 미주성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송정명 목사는 축하 인사로 통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

과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남가주교협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교회의 역사는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위에 세워진 역사이다. 다음 세대가 그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원로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가주교협 증경회장인 한기형 목사도 “남가주교협 56년 역사에 있어 이런 선상 만찬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교회와 교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선배 목회자들을 섬기고 위로하는 일은 매우 귀한 사역”이라고 전했다. 심상은 목사는 “남가주교협이 보여주는 원로 공경의 정신이 남가주를 넘어 미주 한인교계 전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밝혔다.

남가주교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로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을 섬기고 교계의 연합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기자

베데스다 대학교 2026년도 학위수여식

애너하임의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베데스다 대학교(Bethesda University, 총장 고경환 박사)가 12일 본교에서 2026학년도 졸업식을 열고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학교 측은 “교육은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며 “졸업생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마다 빛이 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지도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베데스다대학교는 1976년 고(故) 조용기 목사가 설립한 학교로, 복음 전통에 기초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이어갈 인재를 양성한다”는 사명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학부 신학과장인 조쉬아 파레데즈(Josiah Pare-



2026년도 베데스다 대학교 학위수여식. ©buc.edu/

dez)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예배와 찬양으로 시작된 행사는 Charles Headley 목사의 메시지에 이어 축하 영상과 축사, 학위 수여, 졸업생 대표 연설 순으로 이어졌다. 축하 영상에는 이사회 의장인 허순범 씨와 토드 스피처(Todd Spitzer) 오렌지카운티 검사장, 영감 연방하원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고경환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올해 졸업생들은 신학, 음악, 경영학, 스포츠경영, 정보기술, 유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다. 학교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성과 신앙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 조셉 리 기자

청소년 범죄 예방 세미나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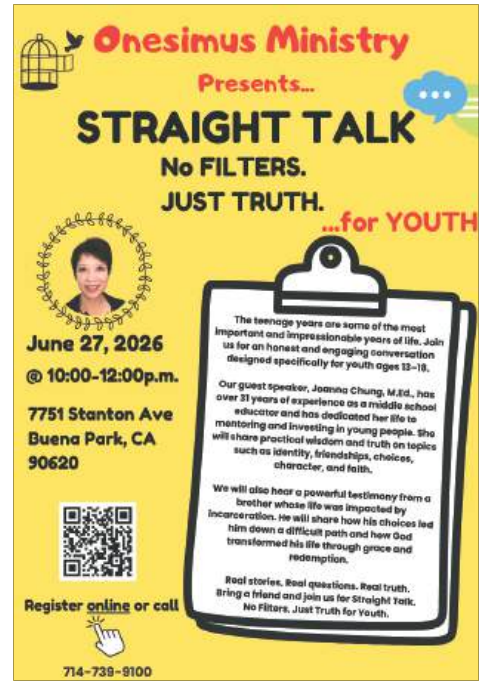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오네시모 선교회(대표 Derek Yim 목사)는 한인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오는 6월 27일(토) 오전 10시, 오네시모 선교회 채플(7751 Stanton Ave., Buena Park, CA)에서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 예방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예수 안에서 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우고, 유희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세미나의 주 강사인 조연정 교사는 3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멘토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이끌 예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청소년기의 정



체성 형성, 또래 관계, 선택과 책임, 인격 성장, 신앙생활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또한, 수감 생활로 인해 삶에 큰 변화를 겪은 한 형제의 진솔한 간증도 준비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그를 힘든 길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통해 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및 등록은 오네시모 선교회 사무실(714-739-9100)

김민선 기자

미셸 스틸 전 연방하원의원 주한 미국대사 인준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하원의원이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최종 관문을 넘었다.

연방 상원은 17일 본회의에서 스틸 전 의원의 대사 지명안을 표결에 올렸고,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인준했다. 이로써 스틸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임명 절차를 거쳐 한국 부임을 준비하게 됐다.

스티 전 의원은 한국계 인사로는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로 주한 미국대사를 맡게 된다. 한국계 여성으로는 첫 사례다.

김영길 목사 초청 멘토링 세미나

목회 현장은 날마다 복잡해지고, 성도들의 필요와 시대의 변화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목회자의 영성과 인격, 건강한 리더십, 그리고 실제적인 목회 역량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귀한 목회적 통찰과 오랜 사역 경험을 나누어 주실 김영길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멘토링 세미나는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목회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실제적인 통찰과 방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목회자와 사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SESSION 1 인격적 설교
- SESSION 2 목회자의 자기분별
- SESSION 3 성도 간의 충돌 다루기
- SESSION 4 PROACTIVE 한 목회

일시: 2026년 6월 30일 (화)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5F Los Angeles, CA 90020)
문의: (213) 739-0403, (213) 434-1170
주최: 월드미션대학교, 기독교일보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등록비 무료, QR 코드 스캔 후 등록해 주세요

“하늘의 노래, 열방을 향하다”

제2회 풀러 선교학 박사 동문회 선교 음악회

제2회 풀러 선교학 박사 동문회 선교 음악회가 지난 6월 14일(주일) 오후 5시 30분 캘리포니아 패사디나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개최되었다.

“하늘의 노래, 열방을 향하다” (시편 117편 1절)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양은용 네팔 선교사, 전아브라함 대만 선교사, 김영진 라오스 선교사, 이보용 베트남 선교사와 그들의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콘서트 1부 사회를 맡은 풀러선교학박사 동문회장 쉰니 김 박사는 “오늘 이 음악회는 찬양을 통해 마음이 모이고, 그 마음이 선교



제2회 풀러 선교학 박사 동문회 선교 음악회. ©기독교일보

로 흘러가며, 그 흐름이 열방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부 김창환 학장의 메시지에 이어, 2부 찬양제가 아야모스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찬양사역자 그레

이스 리, 김은정(수어 찬양, 은혜의 땅 교회 수어찬양사), Los Angeles Praise and Worship(리더 랜디 김), 이선행(재즈 피아니스트), 바리톤 아야모스, 김은정 & 이선행의 헌금 특성, 이정화(가야금 연주자), 이정화 & 이선행(가야금 & 재즈 피아노)의 공연이 이어졌다.

3부에서는 헌금 및 공로패 증정에 이어, 김에녹 교수의 축도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양은용, 김숙진 네팔 선교사는 스포츠(탁구)를 통해 아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도록 돕고 있다. 그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이 이 사역의 중요한 열매”라고 밝혔다. 전아브라함 선교사는 대만의 주

요 40개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세워지도록 돕고 있다.

이보용 베트남 선교사는 소수민족 교회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훈련을 통해 교회의 자립과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김영진 라오스 선교사는 라오스 교회를 위한 신학교육과 지도자 양성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주 행복한 커피학교, 글로벌 힐링 아트테라피, 기독교, 글로벌 힐링 아트테라피, 기독교, 미주복음방송, 크리스천헤럴드, 남가주밀알선교단 등이 협력하고, LA씨티교회, 영생교회(김재연 목사), 영생교회(최종배 장로), Love Mission(신남식 목사) 외 남가주 여러 교회와 단체 및 개인이 후원했다. 조셉 리 기자

“교계 넘어 시민사회도 함께하는 공적 사안”

→ 1면 기사 <투표권>에서 이어서

또한 “전국의 대학가를 비롯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다. 그 분노의 함성은 전 세대로 확산되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선거 수개표’의 구호가 대한민국 전역에 메아리치고 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와 해외 동포 사회에도 큰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국 정부와 관계 기관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20~30대들이 문제 제기 및 시위를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의 한인 청년들, 1.5세와 2세 단체들도 이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 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 한인 교계하고도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목사는 이번 기자회견이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내기 위

한 자리가 아니라고 전제하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

민 목사는 “부정선거 논란은 최근에 갑자기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지난 7~8년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사안”이라며 “그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언급하면 음모론에 빠진 사람으로 몰리거나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도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특히 일부 통계학자들은 선거 결과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며 “선거 제도를 운영하거나 수출하는 국가들 가운데서도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 목사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

비록 규모가 크지 않은 선거였음에도 투표용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투표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는 국가의 근본과 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특히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20~30대 청년 세대가 정치적 개입 없이 공정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 목사는 “이번 기자회견은 이 민사회가 의미 있는 공적 사안에 참여하는 작은 출발점”이라며 “교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요한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지방선거 이후 제기된 투표지 부족 논란과 관련해 해외 한인 사회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참석 단체들은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과 의견 표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찬양제로 선교사 자녀 돕는다



제36회 연합성가합창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오렌지카운티 교계의 대표적인 연합 찬양 행사인 ‘제39회 오렌지카운티 연합성가합창제’가 오는 6월 21일(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한성준 목사)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의 모든 수입금은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을 돕는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이번 합창제에는 은혜한인교회, 감사한인교회, 레저월드한인커뮤니티교회, CTS 아메리카 미션과이여, 무궁화합창단, 오렌지카운티장로성가단, 한인기독교합창단, 아리랑합창단, 그랜드 페스티벌과이여 등 총 12개 팀이 참여해 다채로운 찬양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한 라흠여성합창단과 남가주장로성가단이 특별출연하여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이번 행사의 핵심은 ‘연합’에 있다. 교회와 교단의 경계를 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신앙 공동체의 연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9회를 맞이한 이번 연합성가합창제는 지역 교회의 연합을 넘어, 선교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귀한 무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찬양과 나눔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가 오렌지카운티 교계에 새로운 연합과 헌신의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선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홀리스 사역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도네이션해 주세요.)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김영길 목사의 가슴으로 읽는 성경
 지친영혼을 깨우는 아침 10분 처방전
큐알코드 촬영 후 구독신청해 주세요
 영혼을 위한 아침 처방전(Morning Prescription)
 [복용법] 매주 월/수/금 아침, 출근길이나 조용한 시간에 복용하세요.
 [효능] 불안 완화, 마음의 편안, 영적 회복
 Youtube.com / @Youngkingamsa

2026 NICHÉ BEST SCHOOLS

TRUSTED SCHOOL IN TOWN

EDUCATE ENABLE EQUIP

K-12 PRIVATE CHRISTIAN SCHOOL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Upper Campus

221 S. Juanita Avenue, Los Angeles, CA 90004
 Lower Campus

CONTACT US!
(213) 487-5437
ncahuskies.org

© 센터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은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 의료 메디컬그룹 (IPA) 입니다

치료부터 일상까지

당신의 100세 시대를 함께합니다



LIFESTYLE WELLNESS

일상을 채우는 센터메디컬그룹의 문화·생활

노래와 웃음으로, 마음이 젊어지는 시간
문화 체험 공연

부담 없이 움직이며, 무리 없이 즐기는
건강 증진 스포츠 대회

듣고, 웃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채우는 하루
정서 · 건강 세미나

문의연락

888-847-3098

월 - 금 | 9:00 AM - 5:00 PM



QR코드를 스캔하시면 NO. 1 시니어 전문 한인 의료 네트워크 센터메디컬그룹 이야기를 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대 간 신앙과 가치관 계승 위한 10가지 실천 방안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셉 마테라 목사의 기고글인 '세대 간 신앙 전수, 신앙과 가치관 계승 위한 10가지 실천 방안'(10 ways to transmit generational wisdom)를 최근 게재했다.

마테라 목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컨설턴트,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The U.S. Coalition of Apostolic Leaders), 그리스도 언약 연합(Christ Covenant Coalition)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1960년대 이후 서구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하며,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기성세대의 가치관에서 멀어진다는 이른바 '세대 차이(generation gap)' 개념이 널리 확산됐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히려 여러 세대가 함께 동행하며 서로 배우고, 언약적 연속성을 이어가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반면 영적 부모 역할이 무너지면 사회는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특히 아버지의 부재는 사회 붕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각종 연구에 따르면 수감자 상당수가 성장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양육에 참여한 아버지 없이 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기 4장 5~6절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향할 때 땅에 임한 저주가 거두어진다고 가르친다.

세대 간 지혜의 전수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다음 세대에 지혜와 신앙,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한 10가지 실천 방안이다.

1.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라

자녀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에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 심겨져 훗날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씨앗이 된다.

잠언은 마음에 간직된 진리가 평생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잠언 6:20~23). 실제로 많은 탕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유도 어린 시절 배운 말씀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들의 마음에 계속 울리기 때문이다.

2. 종교적 틀보다 정서적 유대감을



©Unsplash/Sandy Millar

3. 쓸아라

자녀에게 설교만 하지 말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함께 웃고, 대화하고, 여행하며 삶을 나누는 경험이 필요하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고 정서적으로 냉랭할 경우, 자녀들은 신앙을 기쁨이 아닌 억압으로 인식할 수 있다.

가정은 따뜻함과 축하, 애정,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성장 후에도 가족 관계를 소중히 여길 가능성이 높다.

건강한 영적 성장은 반드시 정서적 유대감을 포함한다.

3. 글로 남기는 유산을 만들라

자녀가 성장하면 지혜와 격려, 인생의 교훈을 담은 편지를 남기는 것이 좋다.

글은 반복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랜 영향력을 지닌다. 잠언 역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진 지혜가 기록되어 후대에 전해진 대표적 사례다.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혜택을 누리는 이유는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부모나 조부모가 남긴 진심 어린 편지는 자녀의 삶을 수십 년 동안 이끌어주는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다.

4. 정기적인 가정예배와 영적 대화를 실천하라

의도적인 신앙 교육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는 자녀들이 어릴 때 학교에 데려다주며 성경을 암송하도록 도왔고, 성장한 이후에는 성경적 세계관과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었다고 설명했다.

최소한 가족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신앙적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교회에만 양육을 맡겨서는 안 되며, 가정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우선하라

함께 식사하는 문화는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경 곳곳에서 언약 공동체는 식탁을 중심으로 관계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맞벌이와 바쁜 일정이 일상인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기적인 식사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하며 관계를 깊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족의 식탁은 주님의 식탁처럼 교제와 언약, 삶의 나눔을 상징한다.

매일 함께 식사하기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가족 식사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식탁에 투자한 시간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 자녀가 부모

의 삶과 섬김을 직접 보게 하라

자녀가 성장하면 사역과 봉사, 선교, 구제 활동 등에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신앙은 가르침보다 모범을 통해 더 많이 전수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은 부모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며, 신앙적 신념을 일관되게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깊은 영향을 받는다.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의 본은 수많은 말보다 강력한 교육이 된다.

7. 가족을 분명한 우선순위로 삼아라

자녀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두고 사역이나 사업, 다른 의무와 경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녀는 건강하고 안정된 부부 관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강력한 언약은 부부 관계여야 하며, 안정된 결혼생활은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미래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본보기가 된다.

8. 정직한 고백과 회개로 겸손을 보여라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자신의 실패와 실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솔직하게 나눌 필

요가 있다.

투명성은 신뢰를 형성하고 다음 세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다. 또한 부모가 지나친 엄격함이나 조급함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는 신속하게 사과하고 회개해야 한다.

자녀는 겸손한 부모를 존중한다. 부모의 진솔함과 회개의 모습을 통해 자녀는 은혜와 책임, 용서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

9. 함께하는 경험으로 가족의 결속을 지켜라

가족은 의도적으로 함께 추억을 만들어야 한다.

가족 여행과 모임, 세대 간 교제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 되고 또 자신의 가정을 이루더라도 가족 공동체를 위한 만남은 계속되어야 한다.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 반대로 함께한 경험은 가족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손주 세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라

조부모는 특별한 영향력을 지닌 존재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보다 조부모의 신앙과 기도, 삶의 이야기, 지혜를 통해 더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특히 젊은 세대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조부모는 중요한 신앙적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응답받은 기도와 기적, 치유,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간증은 손주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 여정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조부모가 지닌 영적 권위와 유산 계승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고승희, 김영길, 김중언, 김한오, 류종길, 민중기, 박기호, 송정명, 신성욱, 이상명, 이종용, 임성진, 정우성, 진유철, 한기홍

자문위원

강태광, 고광선, 고창현, 구경모, 구봉주, 국윤권, 김중규, 류용렬, 박은성, 박일서, 오명찬, 우영화, 최현규, 한현중, 써니킴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맹창현

고문번호사

정찬용

지사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213) 739 - 0403

E-mail

chdailya@gmail.com

주소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이사장

폴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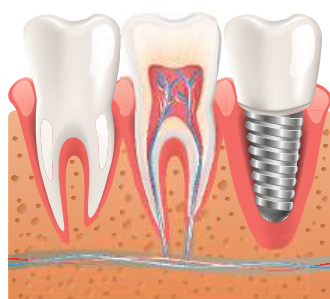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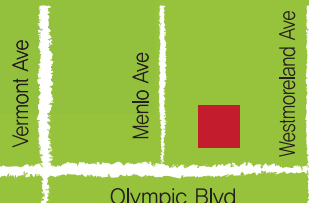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OLYMPIC DENTAL CENTER





DAVID'S TENT
다윗의 장막

REPENTANCE • RESTORATION • REVIVAL

다윗의 장막

— DAVID'S TENT —

70 HOURS NON-STOP
PRAYER & WORSHIP

JOIN US

70시간 연속 기도회

Pepperdine University

Malibu, California

7월 27일(월)~ 7월 30일(목)

July 27(Mon)-July 30(Thu)

✉ 70pray@gmail.com ☎ 626-810-3455 🌐 www.70pray.com



등록 QR CODE
70Hour Prayer

[함께하는 기관] 미주복음방송 | CABC | 굿네이버스 | 한국침례교해외선교회(FMB회장: 주민호 목사) | SEED 선교회
WMU(남종성 교수) | CCC(박종술 목사) | NextGen English Ministry(손경일 목사) | 기독일보
모퉁이들선교회 | 미주성결신학교 | Kalam Mission | 뉴욕모자이크교회 | 토렌스조은교회 | 아름다운교회
더크로스교회 | 오렌지가나안교회 | 남가주사랑의교회(이준영 목사) | 세계등대교회 | 원더풀커뮤니티교회

“中, 강제복송 중단하라”... ‘두 국가론’에도 우려 제기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이 15일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와 반헌법적인 두 국가론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 정책 중단과 탈북민 보호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에스디기도운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 탈북민강제복송반대세계연합 등 20여 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선영재 전국탈북민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 사무국장의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정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김봉수 공동대표(강제복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민경석 공동대표(탈북민강제복송반대세계연합), 신은숙 공동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가 차례로 발언했으며,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복송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오늘 우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도 중국에는 자유를 찾아 탈출한 수많은 탈북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숨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불법체류자가 아니다. 정치적 박해와 식량난, 종교 탄압과 인권유린을 피해 생명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탈북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노동, 성폭력, 정치범수용소 수감, 심지어 처형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다”며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단순한 불법 월경자



‘탈북난민 강제복송 반대와 반헌법적인 두 국가론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 강제복송반대 범국민연합

로 취급하며 지속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이주민이 아니라 난민 또는 최소한 난민 지위 심사의 대상자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이 1982년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1988년에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에도 가입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법의 핵심원칙인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적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민 강제복송은 국제법 위반임을 지적하였고,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인도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해 왔다”며 “미국의회 산하 중국위원회(CECC)는 중국당국이 2023년 한 해에만 수백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였으며, 이들이 귀환 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국가적 보호 책임의 헌법적 토대로 이해되어 왔다”며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민주적인 통일정책은 대통령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두 국가 체제’ 또는 ‘평화적 공존’ 중심의 새로운 대북정책 논의가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일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동조하여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영구 분단을 확정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역사적, 인도적 책임을 축소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주민의 생명과 자유는 정치적 유희를 넘어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 또한 탈북민은 외교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고 밝혔다.

이날 발언에 나선 이정아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는 여성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 대표는 “북한 여성들은 탈출 자체가 목숨을 건 도박”이라며 “대부분이 여성인 탈북민(약 70%)은 중국 국경을 넘는 순간 인신매매의 표적이 된다. 브로커에게 팔려 강제 결혼, 성매매, 가사 노동 착취를 당하며, 중국 당국에 발각되면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고 말했다.

또 “송환된 여성들은 북한에서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심지어 처형까지 당한다”며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 출산한 아기는 영아 살해를 당한다는 증언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근 사례로 중국 정부가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최소 406명의 탈북민을 강제 복송했으며, 2020년 이후 누적 인원은 1,076명을 넘는다고 했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212명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중국 각지에서 체

포돼 북한으로 송환됐으며, 2025년에도 강제결혼 생활을 하던 여성들과 구금 중이던 여성들이 잇따라 복송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어머니 A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2019년, 15살이었던 아들의 탈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A씨는 중국에서 중국 남성과 강제 결혼을 감수했다”며 “아들은 한국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중국에 남아 있다가 2025년 1월 한국행을 시도하던 중 체포됐고 현재 강제 복송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송환된다면 고문, 성폭력, 강제 노동, 또는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며 “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중국 정부는 그 희생마저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중국 정부를 향해 “즉각 모든 탈북민의 강제 복송을 중단하십시오.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허용하십시오. 안전한 제3국 이주를 보장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복송 중단 △강제 구금된 탈북민 석방 및 유엔 난민 지위 보장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중단과 주민 민생 개선을 위한 중국의 역할 △통일부 장관의 ‘두 국가론’ 관련 대국민 사과 및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헌법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극 옹호해야 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중국의 강제복송 정책 중단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 정부가 강제복송을 멈추는 그날까지, 북한주민들이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담임목사들의 ‘은퇴 계획’ 2위는 ‘경제활동’ ... 1위는?



©목회데이터연구소

담임목사 4명 중 1명은 목회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쉬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목데연)는 담임목사 4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목회 은퇴 후 계획’에 대해 조사해 15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쉬고 싶다’는 응답이 4명 중 1명꼴(25%)로 가장 많았다. 목데연은 “평생을 목양에 헌신해 온 만큼, 은퇴 후에는 온전한

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목회자의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사역 외 일반적 경제활동을 하고 싶다’ 20%, ‘선교사, 교회 이외 기독교 사역을 하고 싶다’ 2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목데연은 “은퇴 후 생계나 노후 준비를 위해 일반 경제활동에 뛰어들겠다는 현실적인 고민과 교회를 떠나서도 또 다른 형태의 사역자로 기여하고 싶은 열망

이 동시에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 외에 ‘일반 사회봉사’(12%), ‘해외 선교’(11%) 등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일반 성도로 남고 싶다’, ‘노년부 사역을 맡겨주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 ‘설교자가 없는 시골 작은 교회들을 순회하면 주일 설교자로 섬기고 싶다’, ‘학문에 매진하겠다’ 등이 있었다.

김진영 기자

생명을 살리는 텔로유스

퇴행에서 재생으로! 노화에서 역노화로!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벨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러블/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들/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줄기세포 건강사업 코치 모집

21세기 세포신호 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 세포신호 기술력 독점, 재구매율 91%
■ 코치 교육 시스템 제공
■ 월 \$10,000 이상 수입 가능

문의: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714-851-8035

이탈리아 국민 70% “안락사 찬성”



©pixabay

이탈리아 국민 10명 중 7명이 안락사를 지지한다는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 기독교계는 생명 보호와 죽음 예방에 사회적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우려를 표명했다.

이탈리아 연구기관 유리스페스가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제38차 이탈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안락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024년 66.7%에서 올해 70.2%로 증가했다. 특히 조력 자살에 대한 찬성 여론은 2019년 39.4%에서 올해 54.3%로 크게 늘어 절반을 넘어섰다. 중증 치매 환자의 안락사 지지율은 67.1%, 사전의료지시서 지지율은 80.2%로 각각 집계됐다. 안락사 및 조력 자살에 대한 지지세는 45세 미만 청년층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생애 말기 결정을 비롯한 주요 윤리적 사안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조사했다. 아울러 이탈리아 인구 현황과 관련해, 전체 국민의 4분의 1(약 1450만 명)이 노년층으로 분류되어 초고령 사회임도 함께 짚었다.

이탈리아 복음주의 연맹(AEI)의 루치아 스텔루티 부회장은 이 같은 여론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이탈리아 사회의 세속화와 개인주의 심화를 지목했다. 그는 세속화가 개인의 자율성을 현대 문화의 최우선 가치로 만들었으며, 이것이 윤리적 문제를 대하는 대중의 전반적인 태도를 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가톨릭교회의 영향력 약화도 또 다른 원

인으로 지목됐다. 스텔루티 부회장은 대다수 이탈리아인이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밝히지만,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일관되게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가 문화적 정체성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 재임 기간 동안 가톨릭교회가 생명 윤리 문제를 공공 토론의 중심에서 다소 배제해 온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교회의 행보가 일반 신자들에게 가톨릭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견해를 가져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복음주의 연맹은 생애 말기 결정 논의에 있어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 측은 생물학적 생명을 절대화하는 생명 숭배와 개인의 자아를 절대화하는 자아 숭배 모두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며, 생명은 신이 부여한 유한한 선물로서 철저히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가톨릭계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텔루티 부회장은 생명을 보존하고 죽음을 예방하는 것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임계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환자가 임종 전 치료 결정권을 의료진에게만 맡기지 않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의료지시서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최승연 기자

유럽 내 반기독교 범죄 급증 5월 방화 공격 올해 최고치

유럽 전역에서 반기독교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교회와 기독교 시설을 겨냥한 방화 공격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기독교인 관용 및 차별 감시기구(OIDAC Europ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총 37건의 반기독교 혐오 범죄가 확인됐다. 범죄 대상은 교회, 기독교 기관, 종교 상징물, 그리고 개별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번 통계는 4월 유럽 전역에서 38건의 반기독교 혐오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데 이어 발표된 것이다. 부활절 기간에는 예배 방해와 협박, 폭력 사건이 두드러졌다. 5월에는 특히 교회 시설을 겨냥한 방화 공격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OIDAC 유럽은 5월 한 달 동안 총 13건의 방화 사건을 기록했으며, 이는 2026년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수치라고 밝혔다. 방화 공격은 교회 건물 내부 화재부터 종교 시설과 성물 훼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했다.

영국에서는 워링턴의 한 옛 교회 건물에서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일랜드에서도 방화 관련 사건이 보고됐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각각 4건의 방화 사건이 발생했으며, 프랑스에서는 3건이 기록됐다. 독일에서는 마르바흐, 뮌헨, 텔텐호르스트, 글라트베르크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제노바의 산시로 대성당이 반성직주의 낙서로 훼손됐으며, 일부 낙서에는 교회 방화를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폴란드 크로스노에서는 한 경당을 겨냥한 방화 시도가 발생해 '영원한 도움의 성모' 성화가 훼손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37건의 반기독교 범죄는 방화 13건, 기

물 파손 10건, 성물 모독 3건, 예배 방해 1건, 신체 폭행 3건, 증오 선동 1건, 성물 절도 3건, 재산 피해와 폭력이 동시에 발생한 사건 3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각각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폴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영국,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에서도 사건이 보고됐다.

OIDAC 유럽은 특히 심각한 사례들도 소개했다. 독일 하나우의 Holy Spirit Church에서는 약 200명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던 중 신원 미상의 공격자들이 강철 및 플라스틱 탄환을 교회 건물에 발사해 여러 개의 창문이 파손됐다.

폴란드에서는 한 수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가 강제로 뜯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는 가톨릭 학생 단체 소속 학생 두 명이 극좌 성향 인물들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

포르투갈 칸타네데에서는 한 사제가 교회와 사제관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중 약 90분 동안 감금됐으며, 그리스 하나아에서는 역사적인 교회 종탑이 산탄총 공격으로 훼손됐다.

OIDAC 유럽은 건물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기독교인과 기독교 단체를 향한 적대감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던 한 카페가 2년 반 동안 26차례 공격을 받은 끝에 결국 폐업한 사건을 언급했다.

카페 운영진에 따르면 반복적인 기물 파손과 낙서, 부티르산 공격, 각종 괴롭힘이 이어졌으며, 이러한 행위는 극좌 성향 단체와 연계된 인물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사업 운영이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어린이성경공부 오후 1:30
백송찬양대 주일 오후 1:15

평일 영혼의심예배
- 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스나우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내세대에 예배 오전 9:15)
3부예배(바자세대에)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성경부/EM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료하며, 선교영광을 승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청소년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20 James M Wood Blvd, LA, CA 90015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금요일에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교육관 18

O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중앙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요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주요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n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세번기도회 월-금 오전 6: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온라인

김형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0:50

한국교회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새벽예배 새벽 6:30
E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중 담임목사

LA장로교회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 407-160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김은광 목사 **백승우 목사**

우리가교회
성도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1060 Crenshaw Blvd(2F), L.A, CA 90019
T. (323)610-6989, www.woorigachurch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토) / 6:20(토)

이형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시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훈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O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창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은/토)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org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영애간이예배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장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뷰구구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제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Youth/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향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골 3: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말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C대학장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을 세우고 목숨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9:15 토요일성경인사예배 오전 5:30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금)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구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8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교회학교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영아유치부, 원동부,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부흥회 토요일 오전 6:00 한글학교 주일 오후 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매달 마지막 금요일)

신용환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전 11:40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EM(Holy Wave)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우영담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최원일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 / inlandchurch.org

기독교 제자 양성 삶으로 증명해야

아시아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조직이나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영적 헌신과 순종의 부재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독교 선교 대회에서 싱가포르의 저명한 복음주의 지도자가 아시아 및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단순한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을 벗어나 자신의 삶으로 직접 제자를 길러내는 사역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음을 6월 11일 보도했다.

는 서구 계몽주의에 기반한 '콘텐츠로서의 진리'와 하나님 및 이웃과의 '관계성으로서의 진리'를 대조하며,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역설했다. 관계적 차원이 결여된 진리는 내면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단순한 지식 전달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일상 속 제자도 정렬과 순종의 대가 지불 촉구

기독교 제자 양성의 본질을 한 단어로 정의해 달라는 질문에 찬 목사는 '정렬'이라고 답했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 선포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삶 전체를 맞추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며 현대 교회가 매일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상성을 상실한 채 주간 프로그램에만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먼드 찬 목사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

또한 기독교 제자 양성이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로 '순종의 부재'를 꼽았다. 지상명령의 핵심은 즉 순종하게 하는 데 있으나 현대 교회가 이 기준을 타협했다는 것이다. 찬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개인의 욕망이 충돌할 때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기보다는, 순종의 대가를 거부한 채 형식적으로 예배당 자리만 지키는 교인들이 널리 퍼져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러한 미온적인 신앙 태도로는 결코 의도적인 제자 양성 교회를 구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국제 제자 양성 교회 글로벌 얼라이언스 설립자이자 싱가포르 연약 복음주의 자유교회 리더십 멘토인 에드먼드 찬 목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 중인 '2026 아시아 교회 및 선교 대회(ACCM)' 3일 차 3조연설자로 나섰다. 25개국 2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가 모인 이 자리에서 그는 4개국 5개 신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교회가 직면한 근본 과제가 기독교 제자 양성에 있음을 명확히 짚었다.

찬 목사는 과거 4년간 신앙적 방황을 겪었던 개인사를 언급하며, 예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진정한 주님이 될 수 없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기독교 제자 양성과 거룩함은 분리될 수 없으며, 철저한 회개와 용서, 구속받은 자유로운 삶의 신학이 제자 훈련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찬 목사는 신발 공장이 신발을 만들고 종이 공장이 종이를 생산하듯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자를 생산하는 것이라는 비유로 연설을 시작했다.

삶 자체가 기독교 제자 양성의 전달 체계

연설 후반부에서 찬 목사는 안식년 기간 동안 자신과 교제했던 한 담임목사의 영상 강연을 소개했다. 영상 속 목회자는 전략이나 이론적 가르침보다 자신을 향한 찬 목사의 돌봄과 사랑에서 가장 큰 힘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찬 목사는 대형 교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구속의 공동체로서 삶을 깊이 나누며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것이 제자 양성의 본질임을 거듭 강조했다.

영적 본질 상실과 제자 양성에 대한 오해

이날 찬 목사는 기독교 제자 양성이 왜 중요한지, 왜 방치되고 있는지, 본질은 무엇인지, 왜 실천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등 다섯 가지 진단 질문을 통해 교회 현실을 분석했다. 그는 교회 내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이며 그 근원에는 마음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제자도가 확립될 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숙은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은 온전한 순종과 마음의 변화로 이어진다. 반대로 제자 양성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를 넘어 인적 위기와 영적 고갈이라는 연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찬 목사는 수많은 교회가 기독교 제자 양성을 삶의 방식이 아닌 일회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아울러 그는 과거 네비게이트 선교회 지도자와 나누었던 대화를 소개하며 교회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사역이 교육 과정이나 교재를 제자 훈련의 전달 체계로 삼지만, 진정한 영적 멘토들은 교재가 아닌 자신의 삶 전체를 투자해 제자를 길러낸다는 것이다. 찬 목사는 훌륭한 멘토들의 삶 자체가 자신에게는 가장 강력한 전달 체계였으며, 자신 역시 배운 것을 그대로 전수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미경 기자

조력자살 합법화 재추진 지지 제한적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영국에서 조력자살 합법화를 위한 법안 재추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24년 10월 킴 리드비터(Kim Leadbeater) 의원의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실시된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다. 리드비터 법안은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상원 심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비판론자들은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가 압박이나 강요에 의해 조력자살을 선택할 위험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들에게도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의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심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조력자살 합법화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미 의원들에게 새로운 의원입법(Private Member's Bill)을 발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전을 이뤘음에도 최종적으로 모두 무산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모든 지역구에서 다수의 응답자들이 조력자살 합법화를 위해 하원이 상원을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이는 일부 운동가들이 제안한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정치적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조력자살 합법화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은 조력자살 논의에 앞서 국가보건의서비스(NHS) 개선과 임종 돌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안전장치 부족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다수는 심사장에 환자에게도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실했다. 아울러 다수의 응답자들은 가족 구성원이 조력자살을 선택할 경우 친척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의료진이 먼저 조력자살을 제안해서는 안 되고 환자 본인이 직접 이를 요청한 경우에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성주의 연구단체인 '디 아더 하프(The Other Half)'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인 화이트스톤 인사이트(Whitestone Insight)가 실시했다. 이미경 기자

영국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소 10차례 이상 조력자살 합법화를 시도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일부 법안이 상당한

중국 당국, 주일예배 중 교회 급습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중국 청두시 당국이 6월 14일 주일예배 중이던 이른비언약교회(ERCC)에 대규모 급습해 장로 2명과 남성 교인 4명, 예배 참석자들을 연행했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이하 한국VOM)와 미국에 본부를 둔 동역 기관 차이나에이드는 15일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한국VOM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중국 정부가 끊임없이 공격과 투옥을 반복했지만, 이른비언약교회는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 오늘날의 급습도 그 사실을 바꾸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요청한 기도제목으로 그들을 대신해 주님께 간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한국VOM이 전달한 이른비언약교회의 기도 요청이다.

2026년 6월 14일 오전 11시경, ‘이른비언약교회’의 주일 예배 도중 50~60명의 경찰관이 급습하여 성도들을 포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교인의 신원 정보를 등록한 후 버스 및 다수의 경찰 차량을 동원해 성도들을 한 명씩 강제로 인근 경찰서로 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홍 장로, 우칭 장로, 류잉슈 형제, 니보 형제, 리벤리 형제, 아신 형제 등이 연행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다수의 예배 참석자들도 버스 및 경찰 차량에 연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교회와 형제자매들에게 이른비언약교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해 줄 것을 긴급히 호소합니다.

1. 주님, 이들에게 천국의 평안과 안전을 허락해 주소서. 연홍 장로님, 우칭 장로님을 비롯해 연행된 모든 형제자매들(특히 현장에 있던 어린이들)을 친히 지켜 주소서.

2. 주님께서 성도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 주소서. 많은 사람이 연행되었고, 정상적인 음식이나 물을 섭취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하소서.

3. 박해하는 이들의 마음과 뜻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소서. 아침 기도 시간 형제자매들이 목상했던 대로, 주님께서 경찰관들의 손과 발, 생각과 마음까지 주관하여 주소서.

4. 교회가 시련 속에서 더욱 하나되게 하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양떼를 돌보시어, 이 고난 속에서도 이른비언약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지켜주며, 이 폭풍을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청두 이른비언약교회
2026년 6월 14일 오후 12시 45분

영화 ‘더 초즌’ 스튜디오 배급 확정



달라스 켄킨스 감독이 ‘더 초즌’ 세트장에서 배역 배우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The Chosen, 5 and 2 Studios

기독교 영화 및 드라마 시리즈 ‘더 초즌(The Chosen)’의 최신 극장판 ‘더 크루시픽션(The Crucifixion)’이 전 세계 극장에서 개봉한다. 시리즈 제작사인 5&2 스튜디오의 마크 수리안 제작 총괄 사장은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진행된 산업 패널 토론에 참석해 차기작 라인업과 할리우드 내 기독교 영화 시장의 뚜렷한 성장세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리안 사장은 그동안 주류 영화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신앙 기반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실질적인 흥행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칸 영화제 발표의 핵심은 ‘더 초즌’ 시즌 7에 포함된 첫 단독 장편 영화 ‘더 크루시픽션’의 글로벌 배급 계획이다. 기존 시리즈의 에피소드 공개 방식을 벗어나 처음으로 기획된 장편 기독교 영화인 이 작품은 아마존 MGM 스튜디오가 독점 배급권을 확보해 극장 개봉을 전담한다. 수리안 사장은 아마존 MGM 스튜디오가 배급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업계 내부의 치열한 입찰 경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할리우드 관계자들이 종교적 신념의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기독교 영화가 창출하는 압도적인 흥행 지표와 수익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네스 세계 기록 등재 및 글로벌 현지화 번역 전략

대규모 상업 배급망 확보와 동시에 5&2 스튜디오는 비영리 단체 ‘컴 앤 시(Come and Se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사회 및 교회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보급도 병행한다. 이 단체는 전 세계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스튜디오의 제작 및 배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CDI는 이러한 성과는 철저한 현지화 번역 작업이 뒷받침된 결과라고 밝혔다. 수리안 사장은 성경의 텍스트를 다양한 문화권의 언어로 단순 직역할 경우 본래의 기독교적 의미가 왜곡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작진은 작품 후반 작업에 상당한 자본과 시간을 투입하여 각 문화적 맥락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에 주력하고 있다. 이 과정은 글로벌 관객들이 기독교 영화의 본질적인 메시지를 오해 없이 받아들일도록 돕는 핵심적인 절차로 꼽힌다. 5&2 스튜디오는 유니버설 픽처스 등 기존 대형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달리 연례 팬 행사인 초즌콘을 개최하는 등 철저한 팬 중심의 독립 제작 시스템을 고수하며 관객과의 신뢰를 다지고 있다.

성경 기반 차기작 기획

5&2 스튜디오는 기존 작품의 성공을 이어갈 다수의 성경 기반 차기작 라인업도 구체화했다. 아마존과 공동 제작을 진행한 미니시리즈 ‘요셉(Joseph)’은 촬영을 전면 완료하고 오는 2027년 공개를 목표로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어 달라스 켄킨스 감독이 직접 총괄 제작과 연출을 맡는 3시즌 분량의 신작 ‘모세(Moses)’가 2028년 첫 촬영을 앞두고 있으며 성경의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한 시리즈 역시 기획 개발 단계에 있다. 최승연 기자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아기도회(마침내))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화-금) 05:00AM
-2부 08:15AM -2부 11:00AM -토요일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
이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연합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 (Youth)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EM) 오전 10:30 대학청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3-5) 오전 10:30

주님 CHURCH

주일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9 Email: jjoonim0623@gmail.com

예배시간 매주오전 11:00 **강문수 담임목사**

로렘나무교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3133 Le Parc #1003, Chino hills, CA 91709
T. (909) 519-0876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기레졸) 오전11:00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아부(베베(민음체))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말-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일(금) 오후 7:30

나성복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이정현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손형민 담임목사**
주일 2부 9:30AM 수요일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오영찬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일(영양)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곽덕근 담임목사**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예배 오후 12:30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경회 저녁 7:45 **이충환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00

www.icccla.org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T.(818)363-5887 i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베이크스필드 ANC은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오전 11:00 **송금관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 풍요로운 삶 오전 9:30
화요일 3:30 기도회 매달 둘째주 오전 10:30 목요일 TEE 영육 Zoom 오후 7:30
목요일 가리전도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평강교회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어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V 89147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송상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E.lvkchurch@gmail.com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장년예배 1부 오전 9: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조용철 담임목사**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수요일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금요일 오후 7:0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 1부 예배 11:30 AM **임명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회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종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woorijoeunchurch.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9시 세신자 성경공부 주일 오후 1시 **김광석 담임목사**
주일 2부 예배 오전 10:45 제자훈련 주일 오후 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금요일예배 저녁 7시
Youth 오전 10:45, 오후 1시 새벽예배 오전 6시(화-금)

라운드락교회

2011 Cade Lk, Round Rock, TX 78664
T.(512)228-1934 https://www.rkpc.net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학생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모집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 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INNEX PRO 아이넥스 프로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213-383-1230
2811 Leeward Ave, LA, CA 90005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역임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앉기도 두렵고 매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정력강화**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고기, 김치만두, 찜갈비, 떡갈비,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com



만희복지재단 박형만(앞줄 왼쪽에서 7번째)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 만희복지재단

만희복지재단 취약계층에 지원금 전달

취약계층 50명에 1천불씩 수여
무료 구순열 치료 제공해온
슈라니아 병원에도 기금 전달

만희복지재단(이사장 박형만)은 16일 한인타운 시니어센터 2층 강당에서 '2026 생활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심글맘, 저소득 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50명에게 총 5만 달러의 생활지원금이 전달됐다.

이번 행사에는 남가주한국학원, 남가주 충청향우회, 서동동우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재단에 따르면 수혜자들은 LA 시장실과 USC, LA 시의회 10지구 사무실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으며, 이진백 생활지원금 심사위원장이 심사를 맡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수혜자 50명에게는 각각 1,000달러씩 총 5만 달러가 지급됐다.

박형만 이사장은 이날 아동 전문 의료기관인 Shriners Children's Southern California에도 5,000달러를 기부했다.

충청남도 공주 출신인 박 이사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이 병원이 충청 지역의 구순열 어

린이들에게 무료 수술과 치료를 제공한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매년 생활지원금 전달식과 함께 후원금을 전달해 오고 있다.

만희복지재단은 지난 2015년부터 LA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을 이어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390명을 후원했다. 재단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수혜자들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데에도 힘써 왔다.

한편 박 이사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를 이어오며 국내외에서 나눔과 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란... 새로운 생명 위한 해산의 고통”

→ 1면 기사 <이란 출신 목사>에 이어 “유대인은 이란인에게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동포이자 형제”라며 “이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외세 의존이 아니라 가족에게 손을 내미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목사는 현재 이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독교 확산 현상도 소개했다. 그는 “이슬람이 유입된 지 1400년 만에 이란 국민들은 강요된 종교의 거짓된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 이슬람을 떠나고 있다”며 “현재 이란 전역의 사원들은 텅 비어가고 있으며, 79년 이슬람 혁명 당시 90%였던 신실한 무슬림의 민심은 이제 이슬람 자체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했다.

또 “79년 이슬람 혁명 당시만 해도 무슬림 출신 크리스천은 단 10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슬람 독재가 시작된 지난 48년 동안 하나님은 수백만 명의 이란인들을 구원하시는 기적을 행하셨다”며 “지금 이란 땅에는 모진 박해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수백만

의 성도들이 있으며, 수천 개의 지하 가정교회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이란 내 성경 보급과 관련한 사례도 소개했다. 박 목사는 “이란은 79년 혁명 이후 지난 48년 동안 자국 내에서 성경을 인쇄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돼 왔다”며 “성경을 찍어내는 것은 중범죄로 간주돼 적발 시 감옥뿐 아니라 사형에 처해지는 형벌이 따랐다”고 설명했다.

박 목사는 “그러나 이 엄혹한 전쟁의 와중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 전쟁 중인 이란 땅에 하늘의 양식인 성경이 48년 만에 직접 인쇄되도록 하셨다”며 “저희 한국 이란인 교회가 중심이 되어 선교자금을 지원했고, 이란 본토 내부에서 신약성경 1,000권을 성공적으로 인쇄해 전국의 지하 가정교회로 안전하게 배포하는 역사적인 기적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현재의 위기를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며 “이란의 전쟁과 위기를 바라보는 이란 크리스천의 시각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 “매일 아침을 깨우는 한국교회의 강력한 새벽기도 시간마다 이란 땅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이어 “악한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이란 땅에 다시 한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지상교회가 세워지도록 함께 부르짖어 주십시오”라며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박 목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란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며 “오직 복음의 회복을 통해 한때 실크로드를 넘어 중국 땅까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찬란한 영적 영광을 이란 땅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선 박 목사 외에도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대표)가 ‘기독교인의 전쟁관: 기독교인은 왜 평화주의자가 아닌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ADU 전문 리모델링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디자인
설계
시공

Solar
&
Roof

집수리
일체

“26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바로** 상담해 보세요”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Kitchen팀, Bathroom팀, ADU 전문, Roofing팀, Solar 설치팀, 마루시공팀, Carpentry팀, 전기팀, Plumbing팀, Window팀, Concrete Stucco팀, 철공팀, 페인팅전문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완전 전문가 Crew로 구성)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www.kurbanbuilders.com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ww.en.kurbanlike.com

K-Urban Builders
K-Urban Like CSLB # 854389

213-310-1800

LA 2621 W. Olympic Blvd. # 206
Los Angeles, CA 90006

213-798-2200

OC 6904 Oran Cir.
Show Room Buena Park, CA 90621

강준민 칼럼

기다림은 길을 엽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봄을 기다리고, 사랑을 기다리고, 회복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립니다. 기다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기다림은 동경입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이며, 기대이며, 소망이며,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아직 오지 않은 은혜를 먼저 품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먼저 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사

30:18).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보다 뿌리를 먼저 기르십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통해 우리를 깊고 아름답게 빛으십니다.

한국 사회는 특별히 속도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빨리빨리”는 어느새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속도가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속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고요함을 좋아합니다.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씨앗은 조용한 흙 속에서 자랍니다. 나무는 오래 기다리며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태 속 어둠 가운데서 자랍니다. 가장 위대한 성장은 보이지 않는 기다림 속에서 일어납니다.

기다림은 멀리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을 넘어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곤 합니다. “목사님, 기다리면 정말 길이 열립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기다림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내 가지에 조정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첫째, 기다리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

도는 기다림 속에서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닻과 같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롬 12:12). 기도는 상황을 즉시 바꾸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다리는 사람을 바꿉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기다림

성경은 기다림의 이야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 깊이는 기다림 속에서 형성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깊어집니다.

둘째, 기다리는 동안 배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과 좋은 책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우려 했습니다. 기다림은 배움의 시간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배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깊게 만드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시 119:71). 고난을 스승으로 삼고,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셋째, 기다리는 동안 신뢰를 배웠습니다. 기다림은 신뢰를 훈련합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2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신뢰는 기다림 속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과정 속에서 신뢰는 깊어집니다. 헨리 나우웬은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영성이다.”

넷째, 기다리는 동안 머무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을 돌보고 물을 줍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도 최선을 다해 아버지의 양을 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보다 오늘의 충성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순종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이다.” 기다림 속에서 오늘을 사랑하십시오. 머무는 자리에서 꽃피우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을 통해 미래를 여십니다.

기다림은 결국 신뢰입니다. 기다림은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끝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과정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오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꽃피우십시오. 하나님은 현재에 충실한 사람에게 내일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진유철 칼럼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회복된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 사역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방법과 시스템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렘5:1)

하나님은 새 역사를 위해 당시 각 분야의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큰 성읍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위해 택한 제자의 숫자는 단 열두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추수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른 믿음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에 예속되어서 사회적으로는 계층 간의 갈등이 심했고, 경제적으로 가난했고, 종교적으로는 변질된 혼돈과 방황의 때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치료를 받았고 역전승을 이루었습니다.

현대 오순절 운동의 시발점이 된 'LA 아주사 거리 312번지' 건물은 불이 나서 지붕이

내려앉은 채 버려진 폐허로 마구간이자 목재 창고로 쓰이던 곳이었습니다. 바닥에는 마구간의 흔적인 말의 분변 냄새가 진동했고, 의자가 없어 인근 공사장에서 가져온 나무판자와 통나무, 낡은 껌팩을 걸쳐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산다 믿음은 역전을 만든다 폐허에도 부흥은 온다

백인과 흑인이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거나 버스를 타는 것도 불법이던 시대에, 윌리엄 J. 시모어(William J. Seymour)목사는 노예 출신 부모 밑에서 태어난 흑인으로 천연두를 앓아 한쪽 눈을 실명한 외눈박이였습니다. 그가 LA에 처음 왔을 때는 기존 교회로부터 배척당해 쫓겨나기도 했었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

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들이 치안 방해로 출동하는 일도 잦았고, LA 타임스 등 주류 언론들은 ‘광신도들의 야만적인 소음’, ‘흑인들의 미친 짓’이라며 조롱하고 비난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기도를 선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지고 백인 박사들과 부자들이 흑인 사역자 시모어 목사에게 안수를 받기 위해 줄을 섰고, 흑인, 백인, 히스패닉, 아시아인이 서로를 껴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당시 이 현상을 두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서 인종의 장벽이 쪼개 내려갔다.’는 역사가의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편리해져도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202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달빛' 검색
유튜브: '달빛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가능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켜온 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래지향적 교육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 최첨단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과정제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li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1aurahelio@gmail.com
전화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ea@its.edu

비즈니스가 사명이 되는 시대

건강 · 경제 · 선교를 하나로

1. Teloyouth B.A.M은 비즈니스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 ✓ Teloyouth 핵심 메시지
- ✓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술 기반
- ✓ 우리 몸에서 줄기세포 활성화 (36배)
- ✓ 10년 이상 젊어지는 회복 프로그램
- ✓ 12개월 머니백 개런티
- ✓ 재구매율 91%-지속 가능한 구조
- ✓ 온몸의 세포 기능 · 구조 · 감정까지 회복
- ✓ 100만 명 이상 변화된 글로벌 사례

2. 왜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 ✓ 성도들의 실제 삶을 회복시키는 도구
- ✓ 교회와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
- ✓ 선교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경제 시스템
- ✓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글로벌 리더십 플랫폼

B.A.M (Business As Mission)

- 비즈니스가 선교입니다
- 가정이 선교입니다
- 우리의 일터가 선교입니다

Teloyouth는 사역과 비즈니스가 하나 되는 플랫폼입니다

3. 세대별 비전

- ✓ **차세대 (20-30대)**
→ 글로벌 창업 & SNS 기반 사역 (Telopet 포함)
- ✓ **중장년 (40-50대)**
→ 글로벌 헬스 비즈니스 리더십
- ✓ **시니어 (60+)**
→ 건강 회복 + 경제적 은퇴 플랜 + 사역



TELO B.A.M (Business As Mission) 미팅 초청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당신을 초청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혼의 회복뿐 아니라 건강의 회복, 경제의 회복, 삶 전체의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세우며 세계를 섬기는 리더로 서십시오.

미팅 핵심

- 실제 B.A.M 사역 진행 스토리 공유
- 건강 회복 & 삶의 변화 사례
- 글로벌 확장 비전 발표
- 차세대 리더 세우기 전략

대상

- 목회자 · 사역자
- 크리스천 사업가
- 차세대 창업가 & 리더



폴 김
젊음 회복 프로그램 수석코치
텔로 바이오텍 뱀 디렉터

모임 안내

특강 강사: 폴 김 수석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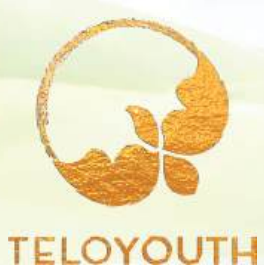
2026년 7월 11일 (토) 오후 1:30

6820 Orangethorpe Ave #G, Buena Park, CA 90620

세미나 후 비즈니스 기회 설명회

매주 목 토 오전 9:45 분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예약 필수**

문의 및 예약 : 714-732-8477 Paul Kim (수석코치)



텔로유스

www.TeloHealing.com
www.TeloYouthKorean.com

이상명 칼럼

진리에는 구형(舊型)이 없다



이상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이야기를 하나 지어 보자. 2023년 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 젊은 스타트업 대표가 어느 교회 청년부 특강에 섰다. 그는 잠시 성경을 훑어 보더니 이렇게 말한다. “성경은 훌륭한 고전입니다. 그런데 GPT-4가 나온 이 시대에, 3,000년 된 책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면 정말 말이 됩니까?” 얼핏 그 말은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GPT-4를 만든 회사, OpenAI의 AI 연구 과정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거대언어모델이 인간의 감정·윤리·서사 구조를 학습할 때 가장 밀도 높게 참고한 텍스트 중 하나가 성경이라는 것이다.

스타트업 대표의 말을 다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 ‘구형을 폐기하기 위해 만든 기술이, 정작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그

구형에 기대고 있다.’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증거다.

성경은 정말 낡은 책인가? 이 질문은 신앙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성의 문제다. 어떤 텍스트가 시대를 건너 계속 읽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단순한 문화적 관성이 아니라, 그 책이 ‘여전히 정확한 질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이상하리만치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사람은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하고, 배신당하면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한다. 권력을 가진 자는 더 원하고, 불의는 그럴싸한 명분 뒤에 숨는다. 기술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과 조건은 놀랍도록 일정하다. 성경은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다룬다.

가인이 질투로 아벨을 죽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라. 이것은 단순한 고대 설화가 아니다. ‘비교에서 태어난 분노가 어디까지 가는가’에 대한 인류 최초의 케이스 스터디다. 소셜 미디어가 타인의 성공을 초 단위로 전시하는 오늘날,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SNS 사용과 우울·분노의 상관관계를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창세기 4장은 그 메커니즘을 알고리즘 이전에 이미 해부했다.

“오래되었다고 다 옳은가?”라는 질문은 정당하다. 역사 속에서 폐기된 사상들도 적지 않다. 솔직히 말하자면, 성경 역시 흑인

노예제 옹호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오남용된 역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텍스트의 결합이 아니라, 텍스트를 권력의 도구로 삼았던 독자들의 배반이었다. 폐기된 사상들은 대부분 특정 시대의 권력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복무했다. 시대가 바뀌면서 그 권력이 무너지자 근거도 함께 사라졌다.

반면 성경의 핵심 윤리, 곧 약자를 먼저 돌보라는 것, 권력은 섬김이라는 것,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어떤 시대의 지배 질서도 편안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것은 제국 로마에서 불온했고, 중세 교권에서도 불편했으며, 오늘날 성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불편하다. 어느 시대도 그것을 완전히 길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메시지의 초역사성을 반증한다.

예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했다 때(요한 8:32), 그 진리는 추상적 명제가 아니었다.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선언이었다. 이 질문은 소크라테스도 물었고, 칸트도 물었고, 오늘 밤 로스앤젤레스의 누군가도 잠 못 이루며 묻고 있다. 나 역시 오랫동안 이 질문 앞에서 머물렀고, 그 물음에 답해 온 성경의 언어가 여전히 가장 정직하다고 느낀다. 시대가 달라도 질문이 같다면, 그 질문에 정면으로 맞서 답을 살아낸 삶의 이야기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진리가

낡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다루는 질문이 낡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지혜의 가뭄’을 호소한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사람에게 답을 주지 못한다. ChatGPT에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물으면,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한 답을 돌려줄 뿐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수결로 진리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수가 틀렸을 때 홀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던 목소리들의 기록이다. 그 목소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네 옆의 사람을 오늘 어떻게 대했는가.

그 스타트업 대표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 “3,000년 된 책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인간이 계속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용서를 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한, 말이 된다. 아니, 그 어떤 최신 버전보다 더 정확하게 말이 된다.

“사랑하라. 정의의 행하라.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미가 6:8). 이 문장은 3,000년 전에 쓰였다. 그리고 오늘,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인간을 향하는 언어를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스마트폰은 3년마다 구형이 된다. 그러나 진리는 구형이 없다. 진리는 처음부터 완성형이다.

구봉주 칼럼

허드슨 테일러 “성령의 역사”



구봉주 목사

감사한교회

허드슨 테일러는 성령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심했을 때에도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에 번개처럼 빛이 들어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56년 동안 성공과 실패를 겪는 가운데서도 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1873년 여름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중국에서 행정 사역을 맡아준다면 자신은 더 오지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역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했고, 중

국인 협력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반 외국 정서와 반 기독교적인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사역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 갔습니다.

이때, 허드슨은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 성령 세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그는 늘 선교회에 성령의 나타나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채우심”, “통로”, “반음”, “부어주심”, “능력의 오심”과 같은 표현들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1892년 3월, 테일러는 모든 CIM 멤버들에게 중요한 회람을 보냈습니다. “오늘날 모든 선교 사역에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자신이 한 일의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여러 방법을 사용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함

니다. 영혼들이 멸망해 가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이 축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만 된다면 모든 것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신을 새롭게 성별하여 드린 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끗해진 성전을 차지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허드슨 테일러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자는 외침에, 중국 선교회 위원회는 모임을 취소하고, 상하이에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자신들과 중국, 본국의 선교회를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하는 합심기도를 드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선교사역은 더욱 불이 붙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곳곳에는 단순히 말씀 운동이 아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씀의 부흥을 가져왔고, 성령의 역사가 믿는 자의 심령에 불을 지폈고, 기이한 능력과 기적의 역사

가 있었으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가 이성화, 지성화 되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어떤 호기심도 자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교회에, 내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길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감사 프레스 디아스 63기가 시작됩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 받고, 신앙과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신앙은 메마르고, 성령의 역사 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지루할 뿐입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심령에 불을 지피시고, 예배 가운데, 심령이 은혜와 능력으로 흠뻑 젖게 하옵소서 신앙의 냉소와 무관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두가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사역자는 있는데, 사역할 차량이 없습니다”

†

당신의 차량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줍니다
교회, 선교지, 캠퍼스,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됩니다.



사역자를 연결합니다
예배자,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사랑의 자리로 연결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힙니다
국내외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믿음을 남깁니다
후대에 남겨질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됩니다.

당신의 차량기부가 **복음의 여정이 됩니다!**

낡아도, 오래되어도 괜찮습니다. 운행이 어려워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선교지 이동



캠퍼스·청소년 사역



지역사회 섬김



교회 및 기관 사역



차량도네이션

문의 및 신청
213-434-1170
chdailya@gmail.com

주관: 기독일보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6.3 지방선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 성명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시 흘러 넘치기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는 이번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며 깊은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음을 통탄한다.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며, 투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기본적인 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초래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가 분명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현장 실수나 행정적 착오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선거 전반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조직 운영과 관리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신뢰를 상실한 선거관리기관은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공개하라.**
- 둘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
- 셋째, 감사원 등에 의한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선거 준비 과정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시행하라. 국민의 참정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성역도 없이 조사되어야 하며, 조사 결과는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넷째, 국회는 초당적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고,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 다섯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독립적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상시적인 감독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감시와 평가로부터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여섯째,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에 착수하라. 단순한 인사 조치나 형식적 개선으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조직 운영 체계와 인사 시스템, 책임 구조, 선거 준비 및 집행 시스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행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는 금번 대한민국에서 실행된 6.3지방선거에서 자행된 모든 사태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특별감사와 책임자 문책, 그리고 해체 수준의 조직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때 민주주의는 더욱 굳건히 세워질 것이며, 국민의 신뢰 또한 회복될 것이다. 아울러 무너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며 외치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헌신에 찬사를 보내며, 그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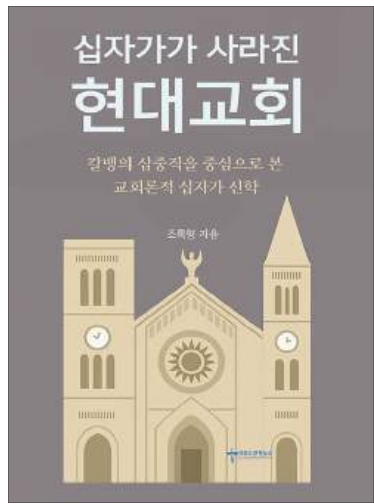
2026년 6월 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지회

대표회장 샘 신 목사 / 공동회장: 강태광 목사, 박세헌 목사, 김영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복음 본질 회복 위한 신학적 대안

번영신학, 복음의 본질 해체한 '신학적 패착' 회복 방안은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교회

조록형
크리스찬북뉴스
352쪽

현대 교회가 십자가 신학을 상실해 가는 현실을 짚으며, 그 원인을 번영신학의 왜곡된 세계관, 형벌 대속 중심으로 축소된 구원 이해, 교회론적 자기 성찰의 결여에서 찾는다.

십자가는 교회의 생명임에도 세속적 성공과 성장 중심 담론에 밀려 복음의 역설이 흐려진 상황을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 교회'라는 명제로 규정한다.

조록형 박사의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교회: 칼뱅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본 교회론적 십자가 신학』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위기를 정면으로 응시한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교회를 지배해 온 번영신학은 복음을 성공과 성장 중심의 내러티브로 바꾸어 놓았다. 그 결과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가 약화되고 교회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왜곡됐다. 이 책은 그러한 현실을 넘어 교회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십자가 신학을 교회론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자는 칼뱅의 삼중직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면서, 먼저 십자가 신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돼 왔는지 살펴본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진리이면서도, 언제나 특정한 시대와 문화 속에서 해석돼 왔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십자가 신학은 시대마다 새로운 형태로 전개됐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적 왜곡에 맞서 '은혜 중심 구원론'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헬레니즘적 지해와 영지주의적 환원론에 맞서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했다. 그의 신학은 공동체적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공적 신학이었다.

마르틴 루터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공로주의와 제도적 권위주의에 대해 '영광의 신학'과 대비되는 '십자가 신학'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인간의 악함 속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위트겐 몰트만은 전쟁과 홀로코스트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며, 십자가를 인류 전체의 고통에 연대하는 사건으로 이해했다. 더글라스 존 홀은 북미 교회의 번영과 승리주의를 비판하며, 교회의 본질은 '낮아짐과 고난의 연대' 속에서 드러난다고 역설했다.

이렇듯 제시된 논의들은 십자가 신학이 단순한 교리의 반복이 아니라, 보편성과 상황성 사이에서 끊임

없이 새롭게 해석돼야 하는, 살아 있는 신학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위기의 근원으로 저자가 지목하는 것은 '번영신학'이다. 번영신학은 단순한 한 흐름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구조적으로 전복한 왜곡된 신학이다. 표면적으로는 성경적 언어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의 본래 의미인 고난과 자기부정을 제거하고, 신앙을 물질적 축복과 성공의 보증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 뿌리는 E. W. 케년과 케네스 해긴으로 대표되는 '말씀-신앙 운동'에 있으며, 믿음을 영적 법칙으로 간주하여 긍정적 언어와 고백이 현실을 창조한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십자가는 더 이상 구속적 사건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어야 할 축복 패키지'의 열쇠로 축소된다.

그 결과 교회의 설교와 목회는 고난의 신학이 아니라 성공의 기술을 전수하는 메시지로 변질됐고, 신자들은 제자도의 삶을 잃고 자기 욕망 실현과 물질적 축적에 몰두하게 됐다. 이는 교회를 세속적 성공 논리와 다르지 않은 집단으로 만들었으며, 공적 신뢰의 상실과 영적 위기를 낳았다.

저자는 번영신학을 단순히 잘못된 교리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해체한 '신학적 패착'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십자가 신학의 총체적 회복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칼뱅의 삼중직'이다. 저자는 선지자·제사장·왕이라는 삼중직을 단순한 교리적 도식이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규정하는 총체적 틀로 제시한다.

선지자적 차원에서 교회는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대의 가치관과 권력 담론에 맞서 복음의 진리를 증언해야 한다. 제사장적 차원에서 교회는 예배와 성례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고, 공동체적 돌봄과 중보기도를 통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한다. 왕적 차원에서 교회는 권력과 성공의 논리를 거부하고 정의와 섬김의 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픽사베이

이 삼중직 구조 속에서 십자가 신학은 교리·예배·윤리·선교를 아우르는 총체적 틀을 이루며, 교회가 번영신학과 세속적 성공주의를 넘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도록 이끈다. 책의 학문적 의의는 십자가 신학을 보편성과 상황성의 긴장 속에서 재구성하려 한 데 있다. 시대적 도전에 응답하는 신학적 성찰을 제시하며, 현대 교회가 망각한 자기비판을 촉구한다. 교회론적 의의는 칼뱅의 삼중직을 목회와 공동체의 삶에 적용한 데 있다. 다만 교회론적 적용이 서구 신학 담론에 집중돼 있어, 한국 사회와 문화의 구체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 번영신학 비판은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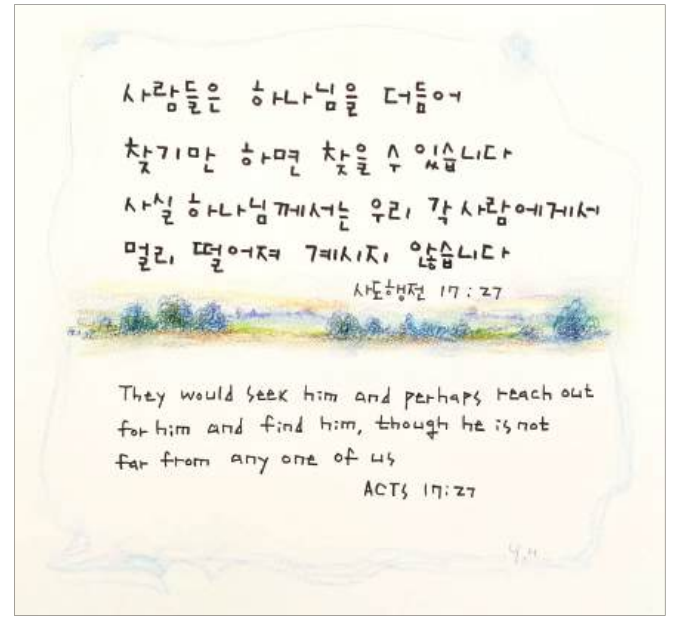
득력이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전략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사라진 현대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복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신학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칼뱅의 삼중직을 토대로 십자가 신학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교회가 '십자가 없는 성공주의'에서 벗어나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도전하는 이 책은 신학자와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모두 귀중한 신학적 자원이 될 것이다.

채천석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있습니다
사도행전 17:27

They would seek him and perhaps reach out
for him and find him, though he is not
far from any one of us
ACTS 17:27

용수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생일 투크 설렁탕 굿모닝스페셜

48시간 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의 맛!

GOOD MORNING SPECIAL EVERYDAY 7AM - 10AM

표고우거지해장국 \$10⁹⁶ +tax

통큰설렁탕 \$10⁹⁶ +tax

북어국 \$10⁹⁶ +tax

주문시 “서민행복”으로 오더해주세요.
5주년 기념 투코스페셜
설렁탕 \$10⁹⁹ Tax 포함가
설렁탕, 백미, 김치, 깍두기
10AM - 2PM

*광고에 쓰인 음식 사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주/문 환영
주 7일 오픈 7AM ~ 10PM
(구)베베리순두부 자리
Uber Eats 딜리버리 합니다.

(213)277-1339 | (213)263-9446
2717 W. Olympic Blvd. #108, Los Angeles, CA 90006

[서성록, 한 점의 그림] 에드워드 히스가 꿈꾼 '평화의 왕국'

대립과 갈등 일룩진 시대, '화평케 하는 자' 되는 것

육식-초식 동물 유유자적 풍경 투박하고 진솔하게, 깊은 파동 오래된 미래, 하나님 평화 세상 성탄 맞는 오늘 요구되는 덕목 힘으로 상대 제압하는 것 아닌 오히려 깨어진 세상 회복시키실 하나님 통치 순종 '살롬의 영성'

포식자인 사자가 소와 함께 유유자적하는 풍경은 투박하면서도 진솔한 몸짓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은 파동을 일으킨다.

미국 웨이커 아티스트 에드워드 히스(Edward Hicks, 1780-1849)의 <평화로운 왕국(The Peaceable Kingdom)>은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공존을 제시하며 우리를 평화의 비전으로 이끌어준다.

평생 이 주제로만 60점 이상의 그림을 남겼다는 사실은 에드워드 히스가 화폭에 담으려 했던 것이 단순한 동화적 상상력의 소산이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그가 평생을 바쳐 나타내고자 했던 것은 위기에 빠진 세상이 도달해야 할 궁극의 지점, 바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 세상이었다.

작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화가 에드워드 히스의 생애를 들여다보아야 한다. 1780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태어난 그는 유년 시절 어머니를 여의고 독실한 웨이커 가정에 입양되어 성장했다.

청년기에 마차 장식공으로 기술을 익힌 그는 나중에 웨이커의 설교자가 됐다. 그를 빛나게 한 것은 성경 서사를 꾸밈없는 솜씨로 재구성하는 예술적 재능이었다. 그러나 어렵게도 웨이커 교리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세속적이고 덧없는 활동으로 보거나 신앙생활에 지장을 주는 방해물로 여겼다. 웨이커 공동체에서 미술은 허영심을 부추기는 세속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히스는 자신의 타고난 예술적 재능과 이를 억제하고 신앙에 전념해야 한다는 웨이커 설교자로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지도자였기에 그 고민은 더욱 깊었으리라 추측된다.

하지만 그의 판단은 결국 예술도 하나님 나라의 추구에 쓰임받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에게 <평화로운 왕국>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붓으로 쓴 설교이자 시각화된 기도였던 셈이다.

작품의 전경을 가득 채우는 동물들의 동거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을 주제로 한 것이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는 말씀처럼, 그림 속 맹수들은 초식동물을 공격하지 않는다. 맹수의 최강자인 사자는 풀을 뜯는 소처럼 온순한 눈망울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이끄는 것은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꽃이나 포도송이를 든 '어린아이'다. 이는 타락 이전 에덴동산의 회복이자, 메시아가 통치하는 종말론적 평화의 상태로 풀이된다.

히스의 작품이 미술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성경 예언(전경)과 미국 역사적 사건(후경)을 한 화면에 결합했다는 데 있다. 그림의 왼쪽 배경에는 웨이커의 지도자 윌리엄 펜(William Penn)이 레나페 인디언 원주민과 평화협정을 맺는 장면이 설정돼 있다.

윌리엄 펜은 식민지를 세우면서 당시 유럽인들이 흔히 취하던 무력 정복, 토지 약탈 등을 거부하고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토지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식으로 인디언들을 '야만인'이 아니라 동등한 이웃이자 계약 당사자로 대했다. 이 장면은 당시 벤저민 웨스트(Benjamin West)가 그린 <인디언과의 펜 협정(1771)>을 차용한 것이다.

웨스트의 원작이 인물의 비례와 원근법을 정확하게 활용해 식민지 개척의 정당성과 윌리엄 펜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한 역사화였던 반면, 히스는 웨스트의 구도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경으로 처리했다. 대신 아이와 한 무리의 동물들을 전경에 배치했다.

즉 히스는 인디언과의 평화협정을 '성경적 예언의 성취'로 해석한 것이다. 히스는 칼과 총 대신 상호 존중과 신뢰에 바탕한 약속만으로 원주민과 공존을 도모했던 윌리엄 펜의



▲에드워드 히스, 평화로운 왕국, 캔버스에 유채, 1834.

시도를 이사야 11장 예언이 지상에서 실현된 사건으로 본 셈이다. 히스는 이를 통해 천상의 비전을 지상에서 구현해 가는 것으로 화폭에 통합하고자 했다.

그림의 제작 배경에는 공동체의 균열과 같이 내부적 요인도 작용했던 것 같다. 에드워드 히스가 속했던 웨이커(Society of Friends) 공동체는 19세기 초, 특히 1827년 대분열(The Great Separation)을 기점으로 히스파(Hicksites)와 정통파(Orthodox)로 갈라지면서 내분 위기를 겪었다. 이 분열은 히스의 사촌이었던 설교자 엘리야스 히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됐다.

신학적으로 히스파는 웨이커 초기 전통인 '내면의 빛(Inner Light)'을 강조하며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나 대속 교리보다 개인의 영적 체험과 내면의 그리스도를 우선시한 반면, 정통파는 당시 복음주의에 영향을 받아 성경의 절대적 권위와 예수의 대속적 구원을 강조하며 히스파를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과 맞물려 히스파가 에드워드 히스와 같은 시골 장인 및 농부 계층을 대변했다면, 정통파는 필라델피아 부유한 도시 상인 및 엘리트 계층이 중심이 돼 도농(都農) 반목 양상으로 확대됐다.

에드워드 히스는 이 분열에 좌절과 고통을 느꼈으며, 이러한 내적 고뇌와 공동체의 화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그가 수심 점의 <평화로운 왕국>을 반복해 그리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자와 양이 함께 누워 있는 장면은 반복하는 두 웨이커 진영이 화해해야 할 모습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시점에서 바라보면, 히스가 꿈꿨던 풍경은 아득한 이상처럼 느껴진다. 21세기 인류는 물질적 풍요와 기술적 진보를 이뤘지

만, 역설적으로 '평화'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국가간 무력 충돌과 유혈사태도 심각하지만 사회 내부의 분열도 만만치 않다.

벤 사스(Ben Sasse)의 주장처럼 온라인 공간은 갈등과 대립의 언어가 난무하는 싸움터가 되었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타자는 여지없이 공격 대상으로 간주된다. 미디어 속 고립은 우리를 고양시켜주는 가치관과 목표, 그리고 삶의 방식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대체 버렸다는 것이 벤 사스의 충격적인 주장이다.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 사고방식마저 비슷한 사람들이 '그들'을 비난하면서 동질감을 공유하는 동안 반대자들은 어떻게 그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며, 상대를 혐오함으로써 외로운 영혼을 달랜다(Ben Sasse, Them: Why We have each other - and How to Heal, St. Martin's Groffin, 2018, 103쪽).

히스의 그림 속에서 사자와 소가 보여준 공존, 표범과 염소의 동행은 현대 사회 문법으로는 설명이 곤란한, 아니 '패배자의 선택'으로 치부되는 슬픈 현실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살롬(Shalom)'의 회복은 시대적 필연성으로 다가온다. 성경이 말하는 '살롬'은 단순히 갈등이 억제된 상태나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N. 월터스토프(N. Wolterstorff)가 말하였듯, 그것은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성에 초점을 맞춘다. 즉 서로 다른 존재들이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해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적극적 상태를 뜻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살롬의 영성'이다.



▲에드워드 히스, 평화로운 왕국, 캔버스에 유채, 45.4x60.6cm, 1830-32.

시국선언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대한민국은 중대한 역사적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로스앤젤레스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교계 원로 목회자들의 깊은 우려와 제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p>첫째, 본회는 대한민국 각 대학에서 발표되고 있는 시국선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회복을 요구하는 양심의 목소리를 적극 지지합니다.</p>	<p>둘째, 본회는 대한민국의 여러 시민단체와 각계각층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의 뜻에 동참하며,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p>	<p>셋째, 본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며, 모든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률을 엄중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있을 수 없으며,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p>	<p>넷째, 최근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가법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며, 투표권 행사가 조금이라도 제한되거나 훼손되었다면 이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사안입니다.</p>	<p>다섯째, 대한민국 사법부와 관계 당국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두 철미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p>
--	--	---	---	---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해를 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침묵해야 할 때와 외쳐야 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가 물 같이,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로스앤젤레스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그리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며 본 시국선언문을 발표합니다.

2026년 6월 12일

로스앤젤레스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 및 임원 일동

THIS IS. RUACH.

The Voice — Praise Concert

Venue

The Novo
8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Dates

Sat. 8.01 — 6:30PM
Sun. 8.02 — 6: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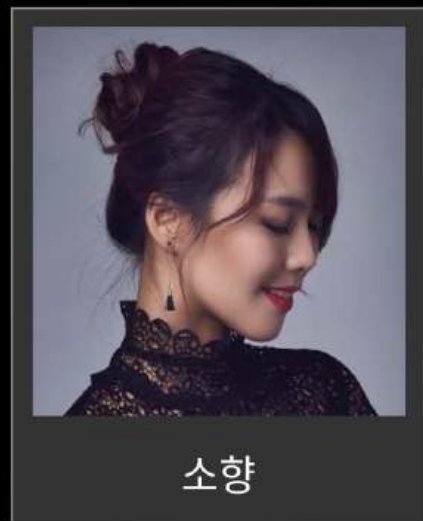
Tickets

\$50 & \$60
—
213.357.1565
562.766.9494 (text)
www.axs.com

On stage with:

강준민 목사 국윤권 목사
고창현 목사 박은성 목사
구봉주 목사 조셉리 목사

Special guests



주최 주관 Loving Worship

대표 목사 Joseph Lee 목사

Producer Troy Choi

